

메시지 6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함

성경: 엡 2:15, 4:22-24, 골 3:10-12, 빌 1:8, 몬 7, 12, 20

- I.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한 새사람, 곧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하나님-사람이다 — 엡 1:9, 11, 3:9, 롬 8:29, 딤후 1:9, 엡 2:15-16, 4:22-24.
- A.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었다. 결국 한 새사람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단체적인 사람이며, 이 새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이중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 창 1:26.
- B.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하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우주적인 한 사람을 이룬다 — 엡 2:15-16, 골 3:10, 15.
- C. 한 새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두 가지 재료로, 곧 구속받은 창조된 사람과 신성한 요소로 창조되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재료를 합하여 한 새사람을 산출하셨다.
1. 그리스도는 새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런 다음 옛사람을 십자가로 제하시게 하는 것을 통해 신성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 롬 6:6, 고후 5:17.
 2.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분 자신 안에서’라는 문구는 그리스도께서 한 새사람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한 새사람이 창조된 영역과 본질이심을 가리킨다.
- D.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 엡 4:24.
1.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주님 자신을 생명과 인격으로 삼는 한 새사람을 산출하시는 것이다 — 엡 3:17상, 골 3:4, 10-11.
 2. 한 새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모셔 올 것이다 — 계 11:15.
- E. 한 새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 골 3:10-11.
1. 한 새사람 안에는 타고난 사람이 없으며, 타고난 어떤 사람을 위한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다 — 골 3:10.
 - a. 비록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한 새사람을 구성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부이다. 더 이상 타고난 사람들이 없다.
 - b. 한 새사람 안에는 오직 한 인격,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만 계신다 — 골 2:17, 3:4, 11.
 2.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침투되며, 유기적인 과정을 통해 그분으로 대치될 때, 한 새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 고후 3:18.
 - a. 새사람은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는 타고난 모든 차이점들이 제거되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까지 우리를 침투하시고 우리를 대치하신다 — 골 3:11.
 - b.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대치하실 때까지 반드시 유기적으로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지셔야 한다 — 엡 3:17상, 갈 4:19.
 3.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 골 3:11.
 - a.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다 — 골 1:27, 3:11.
 - b. 그리스도는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기 때문에, 새사람 안에는 어떤 인종이나 국적이거나 문화나 사회적 신분을 위한 여지가 조금도 없다 — 골 3:10.

II. 우리는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해야 한다 — 골 3:10-11, 엡 4:23-24, 몬 1-2, 10-19.

A.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새사람의 계시와 한 새사람의 의식을 보여 주는 실례가 나온다.

1.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과 그 일행은 모두 실지로 한 새사람의 지체들이었고, 한 새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2. 편지들을 읽는 것에 관해 바울이 한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없었음을 증명한다. 그의 말은 교통과 하나와 조화와 친밀한 접촉을 암시한다 — 골 4:16.
3. 국적과 인종과 계급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한 새사람이 실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했다. 단지 여러 지방에 지방 교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되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한 새사람이 있었다 — 골 2:15.

B. 우리가 한 새사람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여러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이 한 새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골 2:21-22.

C. 빌레몬서는 골로새서 4장의 연속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한 새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몬 1-2, 10-19.

1.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례는 새사람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예증한다.
2.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의 구별이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생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 골 3:4.
3.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종들과 나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회적인 계급과 차이점이 삼켜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골 3:10-11.
4. 새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이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사회적인 계급이나 국적이나 인종에 관한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 고전 12:13, 갈 3:28, 골 3:10-11.
5. 믿는 이들의 동등한 신분은 사랑의 문제이며,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새사람 안에서 믿는 이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한다 — 골 3:14, 딤후 3:15.

III.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한다 — 빌 1:8, 골 3:10-12, 엡 3:16-17, 4:22-24.

A. 속 부분들은 내면적인 애정과 다정함과 동정을 의미한다 — 빌 1:8, 2:1, 골 3:12.

B.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속 부분들을 가지셨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이었다 — 눅 2:49, 요 2:17, 마 26:39, 사 53:12, 42:4, 막 2:8.

C.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한 사람이었다 — 빌 2:5, 고전 2:16 하, 롬 8:6.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곧 그분의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심에 있어서까지 그리스도와 하나였다.
2. 바울은 자신의 속 부분들을 고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 — 빌 2:5.

- a.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존재 전체를 취했다.
 - b.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조정되고 개조되었다.
 - c. 바울의 내적 존재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재조성되었다.
3. 진실함, 즉 정직함과 신실함과 신뢰감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울 안에도 있었다 — 고후 11:10.
4.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성도들을 사랑했다 — 고전 16:24.
- D.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 머무는 것이 요구된다 — 빌 1:21상, 8.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체험했다. 그는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과 하나였다 — 빌 1:8.
 - 2.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존재 안에서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살았다.
 - 3.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속 부분들, 곧 그분의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어야 한다 — 요 15:4.
 - 4.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 거하면서 거기서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 빌 1:8, 4:23.
- E.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한 새사람인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속 부분들로 취했다 — 빌 4:8, 골 3:10-11.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느낌을 자신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교회를 돌보았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느낌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느낌이 되었다 — 고후 2:4, 4:12, 11:2, 12:14-15, 골 1:24.
 - 2.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 새사람 안에서 단체적으로 생활하고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다 — 롬 12:15.
- F.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서 교회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본다 — 몬 7, 12, 20.
- 1.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긍휼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전해졌다 — 몬 12.
 - 2.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산다면, 한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할 것이다 — 빌 1:8, 골 3:10-12.
 - 3. 우리는 단체적인 한 새사람의 일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새사람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새사람의 의식 안에서 교회생활을 실행하게 된다 — 골 3:10-12, 고전 12:25-26, 롬 12:15, 빌 1:8.